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한 연속 심화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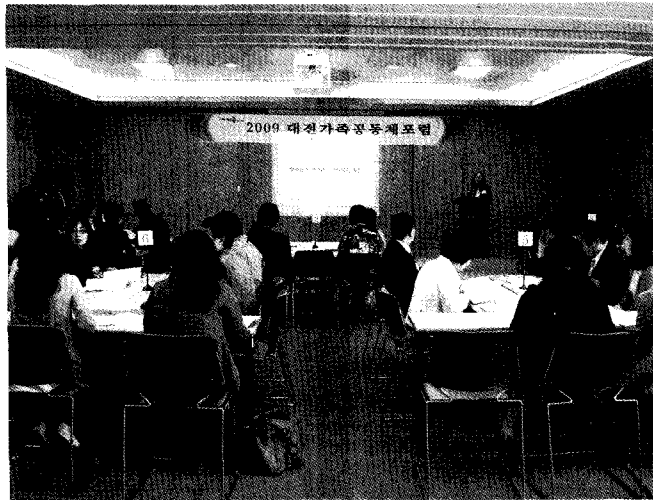
2009 대전가족공동체포럼

대전발전연구원은 지난 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하여 상반기 4회에 걸쳐 심화포럼을 개최하였다. 지역사회의 다문화 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교육청, 법무부의 관계자들도 주제 별로 참가하여 각 기관의 다문화 가족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4회 연속 포럼을 계기로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결혼이주여성지원 사업 수행 단체와의 연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다문화 강사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 가지 대 주제로 심화 포럼을 연속 기획하여 지역 사회의 전문가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도 기여하였으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 연구자 및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도 일조하였다.

2009년에도 특정 주제를 심화시킨 연속 포럼이 상반기에 개최되었다. 이번 상반기에는 “생애주기별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을 주제로 모두 4회의 포럼이 기획되었고, 매 회 8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3월 제1차 포럼에는 “유아·아동기 장애인가족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의 발표와 장애아 부모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유아·아동기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이채식 교수(우송정보대 사회복지과)는 유아·아동기 장애아를 가진 가족의 특성과 욕구, 그리고 정책적 수요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대전장애인부모회의 김정란, 정영애회원은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의 경험과 각종 장애아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책 지원에 대하여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제2차 포럼은 청소년기 장애인가족 지원 방안에 관한 것으로, 장애아동 및 청소년



관련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온 대전장애인부모회의 김윤경 사무국장과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 중인 최민호선생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청소년기가 학령기이기 때문에 학교교육 외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장애 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사춘기와 성에 대한 적응 훈련, 친구와의 문제 해결 능력 배양, 그리고 직업 계획 및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제안되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전환교육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하여, 근원적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특수교육의 현장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장애인 복지 계획을 제안하고자, 제3차 포럼에서는 성인기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와 성인기 장애인가족의 정책 수요 및 사회단체 실천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영미(한남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정책은 장애 자녀의 교육과 재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인기 장애인 가족이나 부모는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성인기 장애인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선옥 대전장애인부모회장은 성인 장애인이 학령기 후 접할 수 있는 교육 및 치료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평생 교육프로그램과 성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설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상반기 마지막 가족공동체포럼은 생애주기별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 담당자와 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대학의 연구 전문가인 사

회복지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 가족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능력을 배양하며, 통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치료와 레크리에이션이 결합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 여가활동프로그램 등이 제안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여러 가족관련 기관과 학교 특수 교육의 연계 프로그램 및 인력 연계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이번 연속 기획 포럼으로 인하여 다양한 장애인 복지 사업 주체들의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생애주기별로 독특한 장애인의 특성과 이에 따른 가족의 복지 서비스 욕구가 다른 점 및 전문가의 정책 제안 등이 인상적이었다는 평을 남겨 주었다.

2009년 다섯 번째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은 상반기와 다른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가족친화환경조성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전시와 각 기관의 가족 복지·가족 기능 강화 지원 정책 담당자, 연구자 및 전문가, 그리고 가족 두고 있다.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장 및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가족친화환경조성 정책 방향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박성욱 센터장은 사회변화와 가족친화환경 조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족환경조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의 활성화 성을 재대해였다. 주제발표 뒤에는 우송정보대 사회복지과 이연복 교수의 가족친화조성을 위한 연구 방향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대전시 운영지원과 후생복지담당 윤종환 강화관은 가정친화적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태에 대해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이병승 지의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의 가족친화환경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지역 사모든 발표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있었는데, 참석자들은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의 지원확대, 대전시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포럼에서 발표·논의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의 가족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대전발전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djdi.re.kr>)에서 볼 수 있다.